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일시 : 2018년 10월 25일

작성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강해안, 김다예, 김상기, 김영진, 김은희, 김재섭, 박상현, 설재균, 정성호, 조천희)

1. 경과보고

대전광역시는 2017년부터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대전광역시 2017년 하반기부터 담당부서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초, '대전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17년 청년정책 추진성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계획되어 있는 청년정책 46개가 5개 부서에 산재돼 있다. 또한 청년정책들이 청년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시적 목표는 있으나 청년의 실질적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월 27일 '청년정책 집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7월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로 청년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 모니터링단은 직장인, 대학생, 청년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10여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 희망카드' 정책을 집중 모니터링 과제로 설정하고 3개월 간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와 청년 정책 비교, 정보공개청구, 담당 공무원 미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정보공개 청구 현황>

■청구 대상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구 일시 : 7월 12일, 7월 23일, 8월 8일

- 두 번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과 한 번의 비공개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청구 내역

- 청년취업희망카드 심사자 현황
- 청년취업희망카드 합격 및 탈락 총 인원과 사유
- 청년취업희망카드 홍보 현황과 결산 내역
- 청년취업희망카드 만족도 조사의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결과
- 청년취업희망카드 연령대별 신청자와 선정 비율
- 신청자들이 작성한 취업희망분야 비율
- 2017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이용자의 지출내역 통계

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문제인식(별첨 1,2 참조)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 문제의식을 도출해 냈다. 첫 번째, ‘청년정책’의 기준이 모호하다. 두 번째,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 세 번째, 많은 청년정책들을 위탁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네 번째, 대부분의 정책이 단순 지원 사업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다섯 번째, 청년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시의 일관된 입장이 부재하다. 여섯 번째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청년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청년정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개되는 세입세출예산서만으로 청년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담당부서에서 청년정책이라고 주장하면 청년정책이 되어버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과 일자리 정책과의 청년정책은 정책 제목에서 청년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의회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과학경제국의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정책’이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정책’이 청년정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청년’정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한 담당부서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지만 5개 과에서 산발적으로 청년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부서들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청년정책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 정책 이용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청년정책을 확인하는 종합

적 창구도 없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된 청년정책담당관은 공개되어 있는 배정예산은 약 3100억 원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의 8.8%지만 그 중 청년정책 지원은 126억 6천만 원이고 나머지 2900억 원은 중고등 무상급식 지원 등의 교육협력지원 예산이다. 청년정책전담 부서라고 부르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다.

세 번째, 많은 청년정책들을 예산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실제로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취업희망카드, 학자금 지원, 희망통장 등 청년사업의 대부분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계획 수정 등 소통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네 번째, 대부분의 정책이 단순 지원 사업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불공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은 청년수당 방식의 예산 배분 외에 정책 대상자들의 구직 혹은 사회진입 과정을 지원하는 어떠한 연계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원기간 후에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미취업 상태로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정책의 후속 관리는 전무한 상황으로, 정책 집행 이후 대부분의 청년들은 여전히 해당 청년문제를 겪고 있다.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특별시도 청년수당의 정책 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 지원’, ‘관계망 지원 사업’, ‘자기탐색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 번째, 청년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시의 일관된 입장이 부재하다. 예를 들어 대학기숙사 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지역 임대사업자와의 이권 충돌 과정에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추진해 나가야한다.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는 정책 과정에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대청넷)을 통해 청년당사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정책 설계와 수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대청넷 외에도 대화 파트너를 확충하고, 정책 과정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취업희망카드 개괄 및 문제의식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희망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2017년에는 6000여명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는 4715명에 그쳤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 졸업학년 여부, 취업여부, 거주 지역 네 가지다. 소득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졸업학년여부는 2017년에는 졸업학기자만 신청이 가능지만 2018년에는 졸업학기에서 졸업학년으로 확대되었다. 취업여부 조건은 미취업 혹은 주당 30시간미만 근로, 거주 지역 조건은 대전 관내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이다. 2018년에는 5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3월부터 6월말까지 신청 2,410명이 신청했고 2,103명이 선정되었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식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의 경우 운전면허, 예체능관련 과목은 수강이 불가능하고, 도서의 경우에도 참고서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소설이나 시 문학 도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모니터링단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단은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을 분석했다. 하나, 자격조건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

가? 둘, 사용처 제한은 적절한가? 셋, 정책이 특정 계층의 청년들에게 더욱 친화적일 수 있는가? 넷, 연계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있는가? 다섯, 홍보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4. 모니터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4-1 자격조건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시절부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만 졸업학년 및 졸업 예정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청년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실질적 구직자일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문제로 확인했다. 6개월 이상의 거주조건은 조금 더 유연함을 발휘하여 현재 시점에서 대전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거나 1개월 혹은 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자격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150%미만인자, 최종 학력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6개월 이상 대전 거주로 네 가지다. 소득 조건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나 배당의 형태가 아닌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의 성격상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학력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조건은 청년들의 삶의 형태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실질적인 취업 준비는 재학 중 휴학 혹은 방학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활동 한다.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주로 지원하는 도서 구입 및 학원 수강은 재학생일 때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당사자들이 각자의 삶의 주기에 맞춰서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원 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취업자 조건의 경우에는 청년취업희망카드라는 정책의 특성상 표면적으로는 적절한 조건일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취업자와 취업자를 나누는 행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취업자의 기준을 주당 30시간미만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격조건은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해서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2030청년들의 비정규직비율은 26퍼센트다. 2017년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52.8%로 절반이 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 54.1%, 한시적 근로자 49.5%, 기간제 근로자 51.5%, 시간제 근로자 63.8%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일상화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의 경우 대전광역시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전광역시 관내 거주자여야 한다는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 시 즉시 지원 중단 조건은 이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개월 혹은 3개월로 거주기간을 축소한다고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나 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적다.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한다면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이 정책에 접근하기 용이해지고 적게나마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2 사용처 제한은 적절한가? <별첨 3 참조>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처 제한 조건은 결과적으로 예체능 계열 청년들

을 배제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두고 사용처 제한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정책 개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직활동과 관련된 지출만을 지원하겠다는 사용처 제한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한된 사용처만 지출하고, 제한된 사용처 외의 지출은 자신의 다른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의 범위에 제한을 둬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성을 강제하고 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사용처 제한은 과도하다.

예체능학원(무도학원, 음악, 연기, 무용, 미술 등) 교육비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예체능 분야의 청년들을 정책 대상에서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동시에 학원비 지출 뿐 아니라 도서 구입에도 참고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로 한정하는 제한 역시 취업의 틀을 좁게 바라보고 있다. 10월 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진행한 모니터링단 2차 집담회에서는 예술가들의 경우에 학원비 뿐만 아니라 전시 등의 문화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역시, 취업에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종의 청년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항목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17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식 1만원 이내, 월 15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식비 항목의 경우 응답자의 47.9%가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항목 중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낀 분야라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52.6%가 가장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답변하였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항목 중에서 식비가 자신이 가장 많이 활용한 분야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23.6%,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4.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용자들은 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카드를 식비로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접 및 시험 등 취

업활동을 위한 시외 이동시 교통비와 시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비 항목 역시 식비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17.5%)가 가장 불편함을 느낀 분야라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4.5%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것을 볼 때, 카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3 정책이 특정계층의 청년들에게 더욱 친화적일 수 있는가?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자들이 작성한 취업희망분야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신청자 4,886명 중 43.1%, 선정자 3,839명 중 54%가 공무원과 공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이었으므로 확인되었고, 특히 ‘기타’ 분야를 지원한 27.5% 중 선정자는 10%로 탈락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이 공무원 공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친화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신청자의 비율과 선정자의 비율 차이를 보면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으로 작성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요식업, 창업, 기타로 작성한 사람은 하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기타로 취업희망분야를 작성한 신청자는 1,346명으로 27.5%지만, 선정자는 383명으로 10%에 불과하다. 다른 업종을 희망하는 경우는 비율의 증감이 있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기타’ 업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대거 정책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실제 정책의 지원 조건에는 취업희망분야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용적으로 사무직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위의 사용처 제한과도 연결된다.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담당관실과의 미팅 과정에서 담당자는 예체능 계열은 지원이 들어오면 심사시 사용가능하게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공고상에는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취업희망분야를 나누는 기준이다. 사실상 공직과 사기업으로 나뉘는 것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구직 희망 분야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류기준으로는 이후에 연계 프로그램 및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가 특정 업종에 친화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더욱 보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표1> <2017년 신청자 취업희망 분야와 선정비율>

취업희망분야	신청자 수	비율	선정자수	비율
계	4,886명	100.0%	3,839명	100.0%
공무원	1,352명	27.7%	1,344명	35.0%
공기업	752명	15.4%	728명	19.0%
사기업	1,394명	28.5%	1,359명	35.4%
요식업	27명	0.6%	14명	0.4%
창업	15명	0.3%	11명	0.3%
기타	1,346명	27.5%	383명	10.0%

4-4 연계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있는가? <별첨 4 참조>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정책 목표상 단순히 6개월간의 한시적 지원을 넘어서 지원 기간 동안의 연계프로그램과 후속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는 청년수당의 정책 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 지원’, ‘관계망 지원 사업’, ‘자기탐색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에는 지원금을 통해 제휴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시가 제공하는 연계프로그램은 부재하다.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그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청년취업희망카드와 같은 직접지원 형식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다. 6개월간 30만원의 지원은 분명 당사자들에게 취업 및 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의 연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은 이러한 연계프로그램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포인트 몰에서 일부 상담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용실태나 만족도 설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시가 적극적으로 연계프로그램과 후속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5 홍보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기존 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청년이라는 명확한 홍보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못한 지역일간지 홍보 등의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청년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또한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확인되었다. 행정의 홍보 방법에 대한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책홍보란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해 공들여 만든 정책, 사업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청년희망카드는 당연

히 청년이 이 정책의 수혜자이자 중심 이해관계자가 되고, 더불어 취업 희망카드에서 지급되는 예산을 소요하는 사용처 및 넓게는 대전 시민들도 부수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호응을 얻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정책홍보는 정책, 사업을 공들여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1) 2017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에 홍보분야로 편성된 예산과 내역

홍보방법	예산	내역
2017년	150,000천원 (당초) 38,000천원 (추가)11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홍보 - 현수막 홍보 - 시내버스 후면광고 - 지하철 PDP광고 및 객차 내 모서리 광고 - 네이버 키워드 광고 - 희망카드 전단지 배포(어학원, 스터디룸, 고시학원, 대학) - 희망카드 홍보물 우편발송(아파트 단지 등 30여 곳) - 신문광고 (10개 사)

2) 2018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에 홍보분야로 편성된 예산과 내역

홍보방법	예산	내역
2017년	8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홍보 - 현수막 홍보 - 시내버스 후면광고 - 지하철 PDP광고 및 객차 내 모서리 광고 - 희망카드 전단지 배포(어학원, 스터디룸, 고시학원, 대학) - 대학 순회홍보 - 도서관, 공공기관 등 대형건물 LED 광고

<대전광역시 취업희망카드 홍보예산 사용목록>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홍보 예산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책 홍보 대상인 청년들이 1) 교차로 2) 신문에 대한 구독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3) 현수막 4) 포스터 5) 전단지 역시 정형화된 홍보 방식으로, 홍보하기 좋은 방식이나 실제로 필요한 대상들에게 노출이나 도달이 제대로 되는지 한 번 평가해 볼 일이다. 청년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로 길거리만 봐도 대부분 청년들이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 폰을 뽐내며 주변에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현저하게 적어진 상황에 이런 방식만 고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18년도 예산에서는 6)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도 의아하다. 그나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왜 삭제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각각에 대한 분석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사실이다. 정책 홍보의 효율을 따져본 것인지, 그저 예산을 줄여서 효과가 없었다는 변명이 필요했던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정보, 예산 내에서 정책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전문화다.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화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각종 이권에 연루되는 부정부패, 업무 침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얼마 전 개개인을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력을 관리해주는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직무 경력을 쌓기 원하는 직원은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뒤, 이후에도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다. 특히 언론을 통한 정책홍보는 언론과 홍보,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전문 분야다. 그런데 다수의 공무원들은 홍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터득할 무렵 다른 과에 배치되고, 언론홍보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홍보 일을 맡기도 한다. 그래서 정책홍보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홍보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언론홍보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진행한 청년정책모니터링 사업은 청년의 눈으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전광역시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른 청년정책 일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지적하였고,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 자격조건은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잘 반영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짧은 근속기간 등 변화한 노동시장, 다양화되는 직업의 형태를 고려해야한다.

두 번째, 사용처 제한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종에 친화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사용처 제한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이 공무원과 공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더 친화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전광역시는 이 결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네 번째, 연계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연계프로그램 및 후속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 번째 기존 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와 이후 행정의 홍보 방법에 대한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

별첨 1> 2017년 청년정책 평가 및 2018년 계획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 2017년 청년정책 추진성과 발췌)

분야별	추진내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희망카드 : 청년 3000여명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 지원 / 만 34세까지 대전거주 6개월 이상 청년, 교육비, 활동비, 교통비 등 지원 - 일자리카페 꿈터 : 대학가 주변 카페선정 취업상담, 무료특강 제공 / 충남대 카이로스, 한남대 유엔아이, 우송대 커피니, 목원대 파스쿠찌, 한밭대 데일리 - 청년구단 : 중앙 시장 내 메가플라자 3층 / 야구를 주제로 한 청년몰 20개 운영 / 야구를 주제로 정보공유와 즐길 수 있는 공간,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설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인지역조성 : 대전역(B1,B3), 샤크존(2층), 충청투데이 (1층B1) / 30억 원 / 청년이 선택하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공간 제공 -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2,600여명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학업지원 - 주택임차보증금지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택보증금 알선 및 이자지원 / 임차보증금(2천만 원 이하) 이자지원,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놀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커뮤니티육성 : 청년커뮤니티 30개팀, 50~100만원 활동비 지원 / 청년커뮤니티의 도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 / 대전청년문화조성 - 대청넷 운영 : 대전청년 98명 / 청년의 시정참여, 정책제안강화/ 9개 분과별 활동, 정책모니터링 및 청년문제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 - 청춘다락 : 9.27 개소, 옛 중앙동주민센터/ 공유공간, 청년공간 / 젊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청년 협업공간 조성과 공유문화 확산

2018년 청년정책 예산 (2018년 1월)

부서명	사업수	2018년	2017년	증감
계	46	31,396,730,000	30,336,564,000	601,126,000
기획조정실	16	15,601,480,000	14,686,060,000	915,440,000
과학경제국	17	14,517,750,000	12,777,264,000	1,740,486,000
문화체육관광국	10	1,157,500,000	869,300,000	288,200,000
자치행정국	2	120,000,000	2,463,000,000	-2,343,000,000
도시주택국	1	0	0	0

<도시주택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은 있으나 당 해 연도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어서 0원으로 표기되었다.>

별첨 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관련 예산 현황

2-1) 2018 청년정책관 예산 중 청년정책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본 예산액	1차 추경 증가액	2017 예산액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300,000원*5,000인*6월	9,000,000		-
명사초청 청년취업 콘서트	40,000,000원	40,000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70,000,000원	270,000		-
청년희망통장	150,000원*500인*12월	900,00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125,000원*160인	20,000		-
청인지역 운영(3개소)	650,000,000원	650,000		-
청춘터전 운영	170,000,000원	170,000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50,000,000원	50,000	150,000	-
대전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	617,000,000원	-	국비 218,800 시예산 398,200	-
청년 창업카드 지원	청년 창업카드 지원 300,000원*6월*500인	-	900,000	-
	대행사업 수수료 36,000,000원	-	36,000	-
	온라인시스템 개발 및 사업관리비 76,000,000원	-	76,000	-
합계		11,100,000	1,560,200	

- 2018년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중 청년정책 내역 합계 12,660,200,000 (약 126억 6천만 원)

2-3)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청년정책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18		2017		
	본예산	1차추경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	(사업 삭제)		400,000	-	-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700,000	-	700,000	-	-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사업 삭제)		1,000,000	-	-
청년혁신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100,000	-	50,000	-	-
청년 취창업 컨설팅카페 설치	(사업 삭제)		-	270,000	-
행복나눔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사업이전)		-	10,800,000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380,000	-	-	-	190,000
대전일자리카페(꿈터) 운영	270,000	-	-	-	-
대학재학중 직무체험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1,000,000	-	-	-	-

-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청년정책 내역 2,450,000원 (약 24억 오천만원)

<별첨 3 : 경제통상진흥원 정보공개 청구 자료, 2017년 청년취업희망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용한 설문지의 질문 내용(항목)	설문 결과 (보기별 비율)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44.7%) ② 여성(55.3%)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8세 이상~ 25세(40.9%) ② 만 26세~30세(49.3%) ③ 만 31세(9.8%)
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구(35.5%) ② 중구(17.5%) ③ 대덕구(8.4%) ④ 유성구(21.7%) ⑤ 동구(17%)
4. 귀하께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40.9%) ② 그렇다(39.4%) ③ 보통이다(15.2%) ④ 아니다(3.7%) ⑤ 전혀 아니다(0.7%)
5. 귀하께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63.8%) ② 그렇다(29.5%) ③ 보통이다(5.9%) ④ 아니다(0.5%) ⑤ 전혀 아니다(0.3%)
6. 귀하께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55.7%) ② 그렇다(34.1%) ③ 보통이다(9.3%) ④ 아니다(0.6%) ⑤ 전혀 아니다(0.2%)
7. 귀하께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① 현수막(18.6%) ② TV광고(8.2%) ③ 인터넷(포털 광고)(22.5%)

	④ 신문, 교차로(3.1%) ⑤ 지하철 광고(1.8%) ⑥ 버스 광고(3.2%) ⑦ 포스터(8.3%) ⑧ 기타(34.4%)
8.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 상담 등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34%) ② 그렇다(37.4%) ③ 보통이다(21.2%) ④ 아니다(5.1%) ⑤ 전혀 아니다(2.4%)
9. 귀하께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항목 중에서 어떤 분야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교육비(38.1%) ② 면접비(2.0%) ③ 자격증 취득 접수비(11.3%) ④ 교재 및 도서구입비(30%) ⑤ 교통비(4.5%) ⑥ 식비(14.2%)
10. 귀하께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항목 중에서 어떤 분야를 가장 많이 활용하십니까?	① 교육비(36.3%) ② 면접비(1.3%) ③ 자격증 취득 접수비(8.0%) ④ 교재 및 도서구입비(27.3%) ⑤ 교통비(3.5%) ⑥ 식비(23.6%)
11. 귀하께서 교육비 분야 사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심리상담(1.4%) ② 인적성심사(2.6%) ③ 취업컨설팅(2.1%) ④ 교양강좌(4.9%) ⑤ 스피치 학원(2.8%) ⑥ 자격증 취득 교육(52.9%) ⑦ 전화/화상 외국어(1.7%) ⑧ 온라인 외국어(15.2%) ⑨ 오프라인 외국어(16.5%)

12. 귀하께서 교재 및 도서구입비 분야에 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 입니까?	① 온라인 도서(88.4%) ② 도서교환권(11.6%)
13. 귀하께서 면접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면접 복장 대여(13.3%) ② 사진촬영(44.5%) ③ 헤어, 메이크업(16.4%) ④ 숙박(25.8%)
14. 귀하께서는 식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도시락(8.1%) ② 식사(59.2%) ③ 커피 음료(32.8%)
15. 귀하께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항 목 중,지원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비(28.7%) ② 면접비(2.0%) ③ 자격증 취득 접수비(6.6%) ④ 교재 및 도서구입비(6.0%) ⑤ 교통비(4.1%) ⑥ 식비(52.6%)
16. 귀하께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항목 중에서 사용 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셨 던 분야는 어디십니까?	① 교육비(12.3%) ② 면접비(8.3%) ③ 자격증 취득 접수비(7.4%) ④ 교재 및 도서구입비(6.6%) ⑤ 교통비(17.5%) ⑥ 식비(47.9%)
17. 17번에 ③기타를 선택한 분들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기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① 사전 심사관리(38.3%) ② 규정 외 사용부분의 엄격한 관리(54.9%) ③ 기타 (63.8%)

<별첨 4 서울시에서 연계 프로그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명			내용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청년 마음 상담 소	일대일 마음상 담	혼자서 고민하기 어렵다면 심리전문가와 일대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룹 마음상담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 청년들과 그 이야기를 잘 이끌어 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청년 마음 친구	온라인 고민상 담소 '마음톡톡'	만나서 상담 받는 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직 망설여지나요? 나의 고민에 귀 기울여 줄 마음 친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관계 망 지원 사업	어슬 렁어 슬렁 반상 회	동네 모임	나에게 가까운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동네 친구와 만나고 고민을 나누는 모임 진행
		주제 모임	주1회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번개 모임	직접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면? 직접 제안하는 주제 또는 후속모임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자기 탐색 사업	자기 이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글쓰기를 통해 나의 경험을 정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주요한 가치관을 탐색하고 이를 주제로 글을 씁니다.
		좋아하는 일을 내일로만드는 법	나의 선호 및 역량탐색을 분석하고 직무와 연결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업 정보	취준은 처음이 라	취업준비과정에서 드는 고민과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동향과 스펙의 진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봅니다.
	직무 이해	그 일은 어떤 일일까?	‘직무’와 ‘분야’의 정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탐색프로그램입니다.
		직무플레이 〈직무is원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직무에 맞게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직자 멘토링 〈지금만나러갑니 다〉	관심 직무/기업의 현직자를 만나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정리	(필수)자기정 리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스피치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수)자소서 글쓰기	
		(선택)면접스 피치&포트폴리 오	